

長水 月谷里遺蹟 收拾 新石器時代 遺物

姜元鍾 (湖南文化財研究院)

I

유적은 전북 장수군 천천면 월곡리 반월마을 178번지 일대의 논경작지에 위치한다. 초기철기시대의 유물과 무덤, 그리고 빗살무늬토기편이 수습된 남양리유적과는 가까운 거리에 인접한다. 유적의 주변으로는 금강의 상류인 天川이 흐르고 있는데, 유적은 이 금강이 북동에서 북서방향으로 흐르는 하상 충적지에 자리하고 있다(도면1).

유적이 알려지게 된 것은 장수군에서 시행한 장척 2지구 경지정리사업 과정에서이다. 전북대학교 박물관에 의해 1999년 4월 지표조사와 시굴조사가 실시되었으며, 조사결과 최근의 경작층과 경지정리 과정에서 제거된 흙무지에서 대부분의 유물이 수습되었다. 그러나 유물과 관련된 유구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후대에 이루어진 경작으로 인해 파괴되었던 것으로 판단하였다.

II

수습된 유물은 빗살무늬토기편 21점과 무문토기편 1점, 석기류 6점이다.

빗살무늬토기편은 신석기시대 후기단계에 해당되는 것으로, 기형면에서는 남해안지역의 빗살무늬토기와 같은 직립구연을 가진 것과 구연이 약간 외반하면서 동체부보다 두께가 두터워지거나 약간 돌출된 것이 있다. 문양은 구연에서 2~3.5cm 정도의 공간을 남겨두고 그 아래쪽으로 동체상부에 한정되게 시문하고 있다. 문양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장수 남양리와 승주 대곡리 및 돌산 송도에서 보이는 것으로 구연에서 2~3cm 아래에 짧은 빗금이 시문된 토기이다(도면2). 두 번째는 입실 운정리, 진안 좌포리 등 섬진강 상류지역과 영남내륙지역 빗살무늬토기에서 많이 보이는 것으로 集線文 계열의